

▶ 전주완판본문화관, '심청전 상 하권 복각 기념' 특별전

10년 걸쳐 복원된 문화적 자산 공개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대표적 역할을 담당한 완판본, 특히 전주의 문화적 자산인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복원은 아쉽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복원을 제작하는 기술인 판각 기능의 전수도 이어지지 않았다.



전주 완판본의 맥을 잇기 위한 작업이 10여년 전부터 진행돼왔다. 사진은 복간이 완료된 '심청전'.

안준영 관장과 문화생들은 전주완판본의 맥을 잇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심청전의 복간 사업을 진행해 마침내 작업을 완결지었다.

전주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심청전 상·하권 목판 복각·출판을 기념해 '100년 만에 핀 꽃, 완판본 심청전' 특별전을 연다. 전시는 571쪽 한글날 주간에 맞아 기획된 것으로 오는 28일 목판 복각·출판 기념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에 복간된 완판본 심청전은 1906년 전주 서계서포에서 간행된 완서계신판으로 박순호 교수의 소장본을 모본으로 했다. 특별전은 책판 제작과정과 함께 심청전 하권의 중요 대목을 현대어로 풀어 스토리가 더해진 전시로 구성됐다.

28일 목판 복각·출판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심청전 하권 중요 대목 현대어로 풀어낸 전시로 구성

안 관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기능의 계승이 중요하다. 전통 판각 강좌를 시작으로 기능을 계승하며 심청전 상·하권 전체를 목판으로 복각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독특한 민체와 서민문화의 특수성을 담고 있듯이 이번 전시는 전주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 더욱 빛난다"고 전했다.

계 간행된 완판본 심청전 기념하기 위해 '완판본 심청전 상·하권 목판 복각 출판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은 심청전 상·하권 전체를 복각한 의미를 전하고, 완판본 심청전을 간행함으로써 새로운 서포(책방)로 자리매김하게 된 완판본문화관과 전주목판서화관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기념식에선 경과보고, 참여 각수 소개를 비롯해 인쇄 시연, 전통 판각 시연, 서포(책방) 현판식, 왕기석 명창·판타시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전주 서포거리(책방골목)의 의의와 가치'를 주제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태영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그는 "전국에 한글을 널리 보급해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대표적 역할을 담당한 한글고전소설 완판본은 전주의 문화적 자산이다. 매년 한글날 주간에 기점으로 전시, 체험, 문화행사 등으로 문화 원형 전승의 중요성과 완판본의 가치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우진문화공간, 김선태 '프레스코로 빛은 들꽃' 전

'미천해보이는 들꽃, 숭고한 이미지로'

"들꽃처럼 작고 하찮은 것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하게 될 때, 혹은 대단한 것을 평범하게, 미천한 것을 숭고한 것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예술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선태 작가가 '프레스코로 빛은 들꽃' 전을 우진문화공간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그의 작업방식은 자연의 질서와 순환의 흐름처럼 들꽃의 모진 생명력을 담기 위해 석공이 화강암에 공력을 들여 각인하는 작업과 흡사하다.

감각적으로 손이 가는대로 빠르게 제작한 그림이라기보다는 노동이 수반된 작업이다. 굳이 미학을 찾는다면 그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빠르고 쉽게 하는 작업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정성들이느라

시나브로 하는 작업이 특징이다. 그는 평소 한 가지 색을 취하기 위해 파내고 깎고 문지르고 칠하고 지우고 닦기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얻어내는 색채와 형태 또한 다듬고 가다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겨우 들꽃 모습을 취하는 과정에서 삶의 지난한 도정을 돌이켜 보기도 한다.

작품에선 마치 오랜 세월 풍화를 겪은 벽화나 화석에 새겨진 들꽃처럼 생명과 생동이 느껴지면서 모질게 피어난다. 꽃의 속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들꽃 그림은 오랜 부침으로 투박한 부조적인 느낌이 강하고 푸근하다.

작가는 전주, 서울, 일본 나고야, 프랑스 파



리를 비롯하여 15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마이애미, 싱가포르 아트페어에도 참여했다. 특히 프랑스 파리주재 한국문화원 초대 개인전에서는 현지인들로부터 열렬한 호평과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이나래, 대상 차지

지난 2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더블스테이지에서 진행된 2017전주세계소리축제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론티어'에서 이나래 씨가 1등상(KB소리상)을 수상했다.

이어 2등상(수립문화상)은 악단광철, 3등상(프론티어상)은 조영덕트리오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 수상으로 이나래, 악단광철, 조영덕트리오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소리상과 동시에 해외 진출의 기회를 모두 휩쓴 이나래는 2018프랑스 바젤메드뮤직 소케이스와 2018 타이완 코리안 포커스에 참가해 우리 창작 음악을 세계무대에 선보이게 된다.

매해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혜택마련과 지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리프론티어'는 지난 7월, 공개 실연 예선을 통해 본선 무대에 서게 될 세 팀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무대에 오른 이들 팀은 다양한 개성과 장르의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재천 집행위원장과 타이완의 협력 기획자 마티어스, 프랑스 바젤메드 뮤직 대표 플로렌스, 인도네시아 예술감독 프랭키 등이 참여했다. /정해은 기자



'도전, 열정'...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차 공연 2차는 10월 1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도전과 열정을 테마로 한 음악회를 전주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다.

개교 70주년을 널리 알리고 희망과 미래비전을 공유하게 될 이번 음악회는 1차로 26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에는 전북대가 배출한 故희명희 작家的 대하소설 '혼불'을 원작으로 한 창작 오페라와 매년 백중일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던 민중행사인 기짚놀이 무대를 꾸민다.

1930년대 말,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삼켜받고 뒤집히고 고뇌하는 전라도의 한 유서 깊은 문중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 혼불을 모티브로 전북대 예술대 한 국음악학과 국악관현악단과 판소리 합창단, 음악과 합창단 등이 무대를 펼친다.

또한 신성민, 여현수씨가 만들어내는 기짚놀이 무대의 화려함을 더하고 1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가수 최진희씨가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로 객석을 메운 사람들과 화합의 무대를 만든다.

또한 2부 공연에서는 강석희 지휘자의 지휘로 서양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 주제가 오페라 '경기병'

/정해은 기자



소리꾼 장사익씨가 전북대 개교 70주년 음악회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친다.

중 서곡을 비롯해 베토벤 3중 협주곡, 오페라 솔로 및 이중창 등 풍성한 무대가 마련된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10월 14일 오후 4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다시 한 번 열리게 된다. 2차 전주 공연에서는 소리꾼 장사익씨의 열정적인 무대가 추가되고 전북대 연합합창단의 전북대 교가 합창으로 개교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